

LH-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속도낸다

이한준 사장·박홍률 시장 현장 방문...로드맵 공유 올해 광주·전남 노후공임 리모델링 2330호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한준 사장이 25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한준 사장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 임성지구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개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로드맵을 공유했다.

특히 임성지구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7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LH의 경영투자자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LH는 올해 지장물 보상공고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 사장과 박 시장은 목포상동1 임대주택 노후 공임 리모델링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노후 공임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주택 세대 내 리모델링을



이한준 LH 사장(가운데)은 25일 박홍률 목포시장(오른쪽)과 함께 목포 임성지구 사업 현장을 둘러 본 후 목포상동1 임대주택 노후 공임 리모델링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통해 주택 성능향상 및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LH 광주전남에서 1000호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에도 2330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에 단지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전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LH에서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목포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한 노후 공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CONOMY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한전KDN-LS일렉트릭 탄소중립 등 신사업 협력

한전KDN은 최근 서울 LS용산타워 컨퍼런스룸에서 LS일렉트릭과 '에너지ICT 협업 및 국내·외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김중우 LS일렉트릭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은 △에너지ICT, 전력계통 제어·운영 관련 국내·외 사업 발굴 △탄소중립 및 분산 에너지 관련 에너지 신사업 모델 발굴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보안기술 개발 △국내·외 거점 활용 에너지 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추진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사업 분야 상호 협력을 담고 있다.

양사는 협약 체결에 따라 에너지ICT와 전력계통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한전KDN과 LS일렉트릭이 보유한 국내·외 고객과 해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양사의 국제적 인지도에 바탕을 둔 해외 사업 및 핵심사업 관련 광범위한 사업 아이템 확보 등 양사간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참석한 양사 대표는 "한전KDN과 LS일렉트릭은 2005년 한국형 에너지 관리시스템(K-EMS)과 2011년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구축하는 등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 "양사가 에너지ICT, 전력계통 솔루션 및 전력 보안 등 전력ICT 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협업해 전력 그리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전KDN과 LS일렉트릭은 에너지ICT 기술과 전력기기 제조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과 해외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 팔피 15만주 이식 성공 완도 바다 3ha 군락지 조성

한국전력은 완도 인근 바다에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인 팔피 15만주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추진했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3ha 면적에 걸친 팔피 군락지를 조성했다. 이는 송파차 600여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대당 2.4t 배출)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블루카본'은 바다와 해초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산림 등 육상의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이상 빠르고, 탄소 저장능력도 2배 이상 높아 최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팔피'는 바다 속에서 꽃을 피우는 해조류로 맹그로브 숲, 염습지와 함께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공식 인증한 3대 블루카본 중 하나다.

한전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팔피 이식을 위한 최적의 대상지 선정에 거쳐 지형·환경조사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완도군 인근 연안을 최종 선정했다.

완도 연안은 전국 팔피의 40%가 분포하고 있다. 이식한 팔피 생존율은 61.8%로 타지역(10%) 대비 6배 이상 높아 팔피 이식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전은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과 환경보전 책임 노력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위니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광주상의,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 제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위니아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탄원서에서 "위니아는 단순한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제조업·물류·서비스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추적인 기업"이라며 "회생이 좌초될 경우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4월 23일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چه'로 잘 알려진 중견 가전기업으로 광주시에 본사를 두고 지난 30여 년간 제조 역량을 쌓아온 지역의 대표 기업이다.

현재 약 350명의 직접 고용 인력을 포함해 150여개의 협력업체에서 약 2500명

의 종사자가 위니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2022년 기준 매출은 약 7820억원에 이른다.

㈜위니아는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 부진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어왔으며,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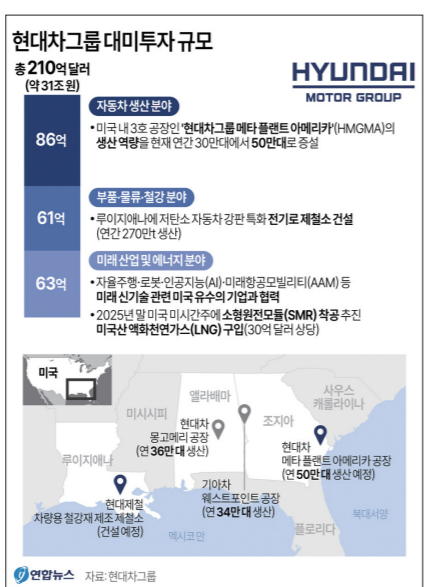
지난 18일 ㈜위니아는 채권단 대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 대표, 매각 주권사인 삼일회계법인, 인수 의사를 밝힌 서울프라임에쿼티와 함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회생 가능성을 높였다.

한상원 회장은 "위니아는 여전히 회복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며, 역량 있는 투자자와의 연결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탄원은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전체의 미래와 연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그룹, 대미투자 '물꼬'...4년간 31조원

관세 압박 속 국내기업 첫 발표



현대차그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기업으로 처음으로 210억달러(31조원)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국내 경제인으로는 처음으로 두 번째 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산업 등 주요 분야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준공식을 앞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향후 50만대로 확대하는 한편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로보틱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도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재건 등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미국에서 뚝뚝이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다각적인 미국 현지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를 비롯한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연관 산업의 성장도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해외 투자는 글로벌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왔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국내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24조3000억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0조4000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투자 11조5000억원, 경상투자 12조원, 전략투자 8000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5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BC카드 정회원사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배재천 BC카드 광주지점장, 김호정 BC카드 상무,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김중민 광주은행 부행장, 김해태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

광주은행, BC카드 정회원사 가입...마케팅 강화

쇼핑·외식업종 전국적 혜택·지역 특화 서비스 확대

광주은행이 BC카드와 손잡고 고객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5일 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BC카드 정회원사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BC카드 정회원사 가입을 통해 광주은행은 기존 광주카드 회원을 포함한 신규 회원에게 BC카드가 제공하는 페이백 및 마이태그와 같은 디지털 혜택은 물론 상시 무이자 할부,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제휴 마케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BC카드의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가 적용, 62개 업종에서 제공되는 상

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비롯해 쇼핑과 외식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한층 강화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BC카드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동행의 첫 단계를 기어 참피언스대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은 물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광주상의, 기업 자금지원 협력방안 논의

중소·중견기업 CEO협의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회장 한상원)는 25일 지역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CEO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자금위기 극복과 지원 방안 등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과 경영 현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용구 ㈜현대하이텍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조주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강현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이장훈 기술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최민준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혁신창업사업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

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제도약자 원자금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한 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국외기업 신용조사지원과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및 환원보증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영 유지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어촌공사, 'FUTURE KRC 로드맵' 집중

삼성전자·네이버 등 대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2050년까지의 미래상과 전략을 담은 'FUTURE KRC 로드맵'에 역량을 집중한다.

25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FUTURE KRC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기업 협력 프로젝트', '청년이사제' 등 미래경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공사는 'FUTURE KRC-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을 2050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식량 인프라 조성,

친환경 용수 관리, 농지은행, 농어촌 공간개발 사업을 3개 플랫폼으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사는 국내 대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성전자와의 '농업용수 환원 사업', 네이버와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삼성전자와 '농업용수 환원 사업'을 통해 물 소외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년간 양수 시설을 설치해 물 소외지역인 평

택, 안동, 창녕, 신안, 완도에 매년 118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네이버와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지역 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공사는 농어촌 지역 노인 돌봄, 탄소중립, 유휴자원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의 인공지능, 가상모형(디지털 트윈) 기술에 주목했다.

공사는 'FUTURE KRC' 추진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창사 이래 최초로 도입한 청년이사제가 대표적이다. 청년이사는 2030세대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세대, 직급, 직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유연한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